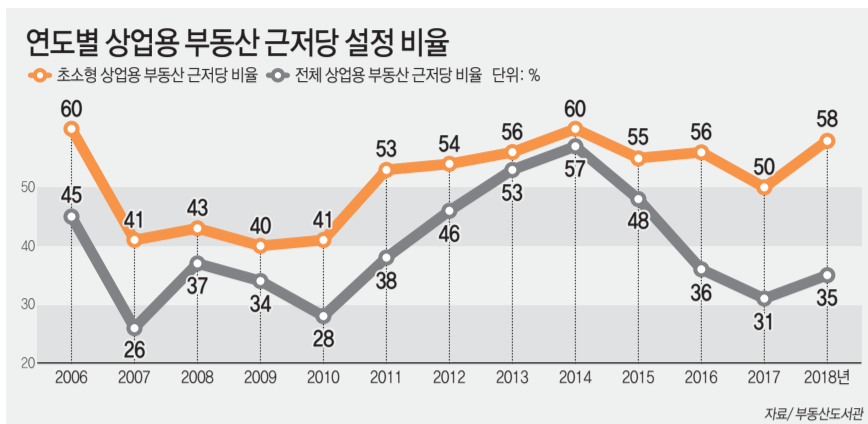


건물 10곳 중 8곳 '근저당' 잡혔다

소형일수록 근저당 비율 높아
근저당 비율도 '채무성격' 가까워
상업부동산도 금리인상 대응해야



26%가 가장 낮았다. 부동산 규제가 최고조에 달한 데다 조사기간 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5%로 가장 높았던 시기다. 부동산활성화 정책이 많았던 2014년엔 이 비율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표본은 1만208건의 실거래 건수로서 50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물이 7564건(74%)으로 가장 많았다. 초소형 상업용부동산은 조사기간 총 거래금액 17조5387억원 중 근저당 금액은 9조2592억원(53%)으로 집계됐다. 최근 8년간은 근저당 비율이 모두 5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총거

래금액은 191조4191억원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은 서울시 상업용부동산 연간 거래금액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I프라퍼트리 리서치센터 김현수 연구원은 "서울시 상업용부동산의 근저당 비율이 반드시 은행부채인 것이 아니라 채무성격에 가깝다고는 평가할 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상업용부동산 대출도 금리인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폭염에 타들어가는 농심... 수급안정 총력

110억 긴급투입... 냉방장치 설치
농진청 등 정부합동지원반도 운영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수리에서 한 농민이 논에 심어 놓은 대파가 폭염으로 말라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축산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부처 총력 지원에 나섰다. 약 11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배추·무를 재배하는 밭의 농업용수와 축사 냉방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관정 개발, 간이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의 급수대책비 30억원을 지원했지만 폭염이 8월까지 지속되고, 당분간 폭염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강우가 없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8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사 내 냉방장비를 농가에 추가 지원한다. 축산분야의 경우 폭염 장기화로 6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453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축사용 냉방장비는 축사 내 온도를 낮춰 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장비 중심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로 구성된 5개반 55명의 정부합동지원반을 운영해 현장기술지원과 함께 농가에 필요한 장비가 신속히 지원되게 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상가임대차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임차인-임대인 갈등원인 조사
권리금 > 임대료 > 계약해지 順

(2016년~2018년 6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분쟁유형) (단위: 건)

신청연도	계	권리금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계약갱신	원상회복	수리비	기타
계	193 (100%)	71 (36.8%)	26 (13.5%)	29 (15.0%)	20 (10.4%)	24 (12.4%)	10 (5.2%)	13 (6.7%)
18년 6월	72	22	9	15	3	11	6	6
2017년	77	21	15	9	14	10	4	4
2016년	44	28	2	5	3	3	0	3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이 총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8% 증가했다. 특히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로 꼽혔다. 7월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72건의 안건이 접수, 이 중 31건의 안건이 조정합의됐고, 현재 11건의 조정이 진행중이다. 제작년에는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2년 6개월간(2016년 1월~2018년 6월)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같은분야의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38% 증가했다.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을 분석한 결과 '권리금' 문제가 가장 큰 분쟁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유형 중 권리금이 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원상회복(12.4%), 계약갱신(10.4%), 기타(6.7%), 수리비(5.2%) 등이 뒤를 이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가 15.4%, 권리금 15.3%로 비스

하게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임대료 조정(13.6%), 법 적용 대상 여부(11.9%), 계약 및 재계약(8.3%)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이 현장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에 참여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국토부, 항공일자리포털 오픈

“뺏다 비행기, 뺏다 일자리” 8만개 한눈에

8만개의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8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의 일자리에 대해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 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항공운송사(50인승이하) 등은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렵고, 승무원 지방생들은 외국항공사 취업 시 사설학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과제의 하나로 정부주도 항공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왔다. 8일 오픈하는 항공일자리포털은 항공기업의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해 구직자가 항공산업 기업의 종합적인 채용정보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9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항공사별로 취업요강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면접경험 등도 게시돼 있다. 항공전문직종(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승무원 등) 취업가이드와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취업상담은 조종, 정비, 관제, 객실승무원, 공항, 항공보안 등 항공전문직종에 대해서 전문가 12명의 상담위원들이 이메일로 상담한다. 9월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종에 대한 진로탐색 정보도 준다.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객실승무원, 항공정비사 등이 되기 위한 자격취득 절차와 시험안내, 교육기관, 취업대상 기관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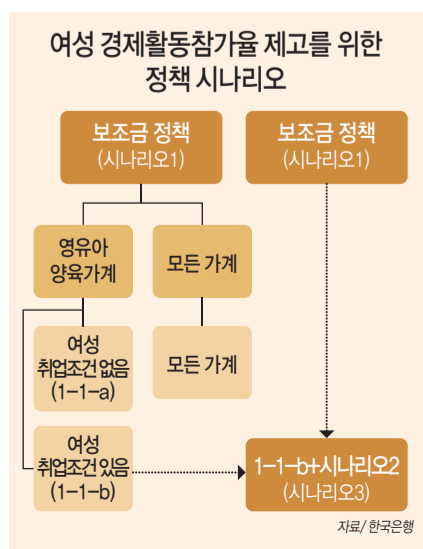
참치 지키러 전세계 과학자 한국 모인다



참치 자원 보존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인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제14차 과학위원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WCPFC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국제수산물기구로 다랑어류, 새치류, 상어류, 바닷새류, 바다거북류 등을 관리하고 있다. 고도회유성 어족은 2개국 이상의 연안국이나 국제 수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하여 회유하는 종을 말한다. WCPFC가 관리하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은 전 세계 다랑어류(새치류 포함) 생산량 중 50% 이상(약 270만 톤)을 생산하는 최대어장이다. 우리나라도 이 수역에서 연간 약 26만 톤을 어획하고 있어

국내 원양어업 전체 생산량(2017년 기준 43만6000톤)의 60%를 차지하는 주요어장으로 꼽힌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랑어류, 새치류 등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총 19개 목표종과 부수어획종의 어획동향과 자원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12월 열리는 총회에 권고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과학위원회에서는 눈다랑어의 자원상태가 호전됐다는 작년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눈다랑어 자원상태 개선에 따른 어획쿼터 증대 권고도 출몰될지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여성 고용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부터”



한은 '기혼여성 경제활동 분석보고서' 여성 인력의 고용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분석(조사국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송수혁 조사역)'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각 정책의 한계가 서로 상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계를 이루고 자녀 수 등 가계의 다양성이 반영된 생애주기 모형을 설정해 분석했다. 기혼 여성 노동공급 확대방안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해 여성의 실효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인적자본 축적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고려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